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05.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차량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 지침 발표

- 5.10 英 교통부는 화물차·버스·크레인 등 상업용 차량의 테러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△보안관리 계획 수립, △위험노출 평가, △잠재적 위험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보안 지침을 발표

○ 러, 총기난사 사건 계기 '총기 규제 강화' 추진

- 5.12 「푸틴」 러시아 대통령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학교 총기난사 사건(사망 9, 부상 수십명) 계기, 총기 규제 강화를 지시
* 용의자는 19세의 해당 학교 졸업생으로, 반자동 산탄총을 허가받아 범행에 사용

미주

○ UN, ISIS의 이라크 야지디族 학살 조사보고서 발표

- 5.10 「카림 칸」 UN 조사단장은 ISIS가 이라크內 야지디族을 생물학적으로 멸종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학살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
* '14.8월 ISIS가 이라크 북부지역 소수민족인 야지디族 수천명 학살·납치

○ 美 대배심, 한인 여성 4명 등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 결정

- 5.11 美 대배심은 지난 3월 애틀랜타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여성 4명 포함 총 8명을 살해한 백인 남성 「애론 롱」(22세)을 살인·총기소지·흉기공격 및 국내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결정
* 풀턴 카운티 「윌리스」 검사장은 증오범죄를 적용하여 '사형' 구형 의사 표명

아 · 태평양

○ 탈레반, 이슬람 명절 ‘이드’ 맞아 3일간 휴전 선언

- 5.10 탈레반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‘이드 알 피트르*’를 맞아 “이드 첫날(5.13 또는 5.14)부터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전국에서 적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기로 했다”며 휴전 선언 성명 발표

* 라마단이 끝나는 날 사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 축하하는 행사

** 아프간 국가화해최고위원회 의장 측은 탈레반의 휴전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

○ 외교부, 아프간 여학교 폭탄테러 강력 규탄 입장 발표

- 5.10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“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, 동공격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”고 발표

* 5.8 아프간 수도 카불 소재 공립 여학교 앞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68명 사망·165명 부상

○ 법원, 佛대사관 협박전단 부착 무슬림 ‘집행유예’ 선고

- 5.12 서울서부지법은 ‘20. 11월 駐韓 佛대사관 담벽에 협박성 전단을 부착해 ‘외국사절에 대한 협박’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人·키르기스스탄人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

* 佛 대사관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해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

중 동

○ 터키, 대테러 작전으로 PKK 테러리스트 19명 사살 발표

- 5.10 터키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터키軍과 국가정보조직(MIT) 협력으로 진행한 ‘발톱 조명’ 작전과 ‘에렌-14’ 작전으로 총 19명의 PKK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발표

인도네시아, ISIS 추종 '가족 테러범'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8.5.13~15간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市 교회 3곳과 경찰본부 등지에서 총 5차례의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28명 사망·50여명 부상
 - △ 1차 : 오토바이 승차자가 자행 △ 2차 : 폭탄조끼 착용 아이들의 자폭 △ 3차 : 차량폭탄 공격 △ 4차 : 테러범 은신처 습격 경찰 대상 폭발물 점화 △ 5차 : 수라바야市 경찰본부 대상 테러 등
 - 총 3가족으로 구성된 테러범들은 시리아의 ISIS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국했으며, 이들은 인도네시아 대테러청에서 집중 감시중이던 테러위험인물 500명에 포함된 자들로 최종 확인
- 경찰청은 사건 직후 ISIS 연계조직 '자마 안샤룻 다울라'(JAD)를 배후로 지목하며, 同 조직이 지난 '16년 도심 총기·폭탄테러의 배후 혐의로 지도자 「압둘라흐만」이 검거되자 자행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발표
 - * ISIS도 선전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의 배후임을 자처
- 한편, 전문가들은 일가족 테러 동원과 관련해, △ 검문회피 용이 △ '성전(聖戰)은 가족 모두의 역할'이라는 ISIS의 세뇌효과 때문이라고 분석
 - * 인도네시아 대테러 당국은 'ISIS는 조직원이 테러 자행후 사망시 정부의 온건화 교육으로 유족들의 급진사상이 무력화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'고 설명

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자마 안샤룻 다울라(JAD, Jamaah Ansarut Daulah) >

- (결성) '15.3 인도네시아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무슬림 성직자인 「아만 압둘라흐만」이 ISIS에 충성을 맹세한 자국 군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무장세력을 규합하여 결성
 - * '16.12월 인도네시아 의회가 '가장 위험한 테러조직'으로 평가, '17.1월 美 국무부가 '국제테러단체' 지정
- (주요테러)
 - '16.1.14 자카르타 중심부 쇼핑몰 인근 연쇄 자살폭탄 테러(7명 사망, 20여명 부상)
 - '18.5.13~15 수라바야市 성당, 교회, 경찰본부 등 연쇄 자살폭탄 공격(28명 사망)
 - '21.3.29 수라바야市 마카사르 성당 자폭테러(테러범 2명 사망, 19명 부상)

